	보도해명자료	
	배포일시	2019. 10. 2(水) / 총 1매(본문 1매)
국토교통부	담 당 자	• 철도건설과장 임종일, 철도건설과 이중곤사무관 • ☎ (044) 201-3950, 3961
산업통상자원부	담 당 자	• 전력산업과장 윤요한, 전력산업과 주세형서기관 • ☎ (044) 203-5150, 5151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정부는 북한 직접 송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□ 지난 1월 국토부, 철도시설공단이 **북한철도 현대화 시 철도운행에 필요한 북측의 전력현황을 파악**하기 위해 **산업부, 한전에 협의를 요청**함에 따라 4개 기관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

□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**현재 남북전력망 구축 계획은 없으며, 철도운영만을 위한 전력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**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
○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10.2) >

◈ 정부가 북한에 직접 전력을 송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
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중곤 사무관(☎ 044-201-4782), 산업통상자원부 주세형서기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